

왜 다시 자유주의를 말하는가

-자유주의를 통해 본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일시 : 2013.12.10 (화) 14:30

▶ 장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왜 다시 자유주의를 말하는가

자유주의를 통해 본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다시 자유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자유주의에 대한 언급에서 드러나듯 자유주의는 경제사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역사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작동원리로 그 의미와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자유주의에 대한 해석은 매우 다양하고 자유주의에 붙는 수식어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자유주의, 진보적 자유주의가 등장했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거셉니다.

이러한 시기에 자유주의에 깊은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자유주의가 갖는 의미를 진솔하게 엮은 <나는 왜 자유주의자가 되었나(복거일 편저)>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는 비단 개인의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자유주의가 무엇이고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이것이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또 앞으로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왜 다시 자유주의를 말하는가: 자유주의를 통해 본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책의 저자들과 함께 자유주의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모쪼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12월10일(화) 14시 30분 ~ 17시 00분
- 장소: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프로그램

14:00~14:30	등록	
	사회 : 현진권 소장(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14:30~15:00	기조강연	복거일(소설가, 나는 왜 자유주의가 되었나 편저자)
15:00~15:30	자유주의: 부자와 기득권을 위한 이념인가- 가난속에 싹튼 자유주의	
	신중섭(강원대 윤리교육과)	
	조동근(명지대 경제학과)	
15:30~16:00	간접주의, 사회주의의 대척점에서의 자유주의	
	민경국(강원대 경제학과)	
	안재욱(경희대 경제학과)	
16:00~16:30	자유주의의 순례자들	
	김이석(시장경제제도연구소)	
	윤상호(한국경제연구원)	
16:30~17:00	자유주의와 실천의 문제	
	김정호(프리덤팩토리)	
	조전혁(명지대 교양학부)	
17:00	폐회	

[기조강연]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의 과제

복거일

1

<나는 왜 자유주의자가 되었나>에 실린 글들은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의 간략한 자서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구성 원리로 삼았지만, 그것을 떠받치는 이념인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해선 호의적이지 아니한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자유주의자가 되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체험이 담긴 터라, 이 책은 부피는 작지만 영향에선 작지 않으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젊은 자유주의자들이 이 책에 실린 선배들의 경험에서 크든 작든 도움을 얻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과거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자산으로 삼아 미래를 전략적으로 설계합니다. 이런 사정은 지금 여기 모인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에게 상당히 또렷한 과제를 부여합니다. 그 과제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보다 힘찬 이념으로 가꾸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먼저 이념의 성격에 대해 살피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념은 친화적인 생각들과 지식들이 한데 모여 하나의 체계를 이룬 것입니다. 이른바 ‘میم 복합체(memeplex)’입니다. 자연히, 보다 깊은 수준에 자리잡은 질서를 통해서 그것을 구성한 생각들과 지식들이 일관성을 지니도록 하는 일이 긴요합니다. 아울러, 되도록 너른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 나와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념은 보다 깊고 보다 너른 무엇으로 늘 확장되어야 합니다.

2

이념을 보다 깊은 질서를 통해서 일관성이 있는 체계로 만드는 일에서 가장 나은 길은 과학적 지식으로 이념을 다듬는 것입니다. 과학의 본질적 강점은 검증을 통해서 보다 나은 지식들을 쌓아가는 능력입니다. 이 점에서 경제적 자유주의는 가장 열린

태도로 과학적 지식을 받아들여 자신을 다듬어 왔습니다. 늘 주류 경제학이 새로 발견한 지식들을 받아들여서 보다 효율적인 정책들을 제시했고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을 도왔고 그런 과정에서 ‘개인들에 대한 사회적 강제를 되도록 줄인다’는 자유주의의 이상을 실현해 왔습니다.

근년에는 진화생물학의 성과들을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한층 깊은 수준에서 이론적 바탕을 마련했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화의 과정이 작용해서 생명이 나타나고 사회가 자라나는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특히, 신의 섭리나 정부의 간섭이 없이도,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개체들 사이에서 협력이 진화하는 과정이 밝혀지면서, 자유주의 이념이 튼실한 과학적 근거를 지녔고 자본주의 체제가 자연스럽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지적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물리과학, 생명과학, 사회과학, 인문학의 성과들을 받아들여서, 나아가서 예술에 대한 이해로 영역을 넓혀서, 자유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되도록 깊은 곳에 마련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예술을 업으로 삼는 저로선,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이 예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감정이 이성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설득력있게 주장한 사람은 경제학자인 로버트 프랭크입니다. 감정에 대한 이해 없이, 사람의 판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여러 해 전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경제적 자유주의자들 가운데 감정을 가장 정교하게 다루는 예술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경제인’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높지만, 모형인지라, 그것이 실재하는 인간에 아주 가까운 모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인이 지닐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함을 가장 잘 보완하는 길은 예술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사람의 복잡한 심성을 살피는 것입니다.

3

경제적 자유주의는 물론 자유주의 한 부분입니다. 이 세상엔 자신을 자유주의자라 부르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은 아주 적습니다. 우리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사정에 대해서 성찰해야 합니다. 왜 다른 분야에서 자유주의를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해선 거세게 반발하는가? 왜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은 비난과 따돌림을 받는가? 이 괴로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서, 경제적 자유주의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유주의는 이 세상 모든 일들에 적용되는 이념입니다. 현실에선 이념적 분화가 경

제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그렇게 된 까닭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해선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사정입니다. 인민 주권, 의회 정치, 자유 투표, 언론 자유, 정치와 종교의 분리, 사법적 정의와 같은 것들을 내용으로 삼는 정치적 자유주의는 이미 사회의 기본 원리가 되었고, 자연히, 논의의 초점이 경제 분야로 옮겨졌습니다.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나온 여러 가지 사회주의 체제들이 주로 경제적 조직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도 거들었습니다. 자유주의가 개인들의 선택을 제약하는 인위적 장애들을 줄이려 애쓰므로, 자유주의는 정치나 경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면들에 적용됩니다.

자유주의가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는 실은 풍속입니다. 국가가 존재하기 이전 촌락 공동체에서도 개인들에 대한 사회의 억압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자유주의나 경제적 자유주의가 나오기 전에 풍속적 자유주의가 나왔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풍속적 자유주의자들은 현대 사회에서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분명히 개인들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일들에서도 사회가 간섭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은 풍속적 자유주의자들의 면모도 지녀야 합니다.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이런 사정이 우리 경제적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 논의되는 일은 드뭅니다.

4

자유주의는 생태계에도 적용됩니다. 우리에게 친근한 예를 들면, 경제 활동으로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 일이 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나온 오염 물질들로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막는 일은 쉽지 않은데, 시장을 이용해서 기업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환경 오염을 막는 데 가장 널리 쓰이는 대책은 정부가 최대 허용수준을 정해 놓고 기업들에게 그 수준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익숙하지만, 너무 거칠어서, 사회적 비용이 큼니다. 예컨대, 오염 물질을 줄일 기술이나 자금이 없는 기업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염 물질에 세금을 매기면, 기업들이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고안한 영국 경제학자 아서 피구의 이름을 따서 '피구세(Pigovian tax)'라 불리는 이 방안을 따르면, 작은 비용으로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기업들은 오염을 크게 줄이고, 방지에 큰 비용이 드는 기업들은 오염을 비교적 적게 줄이고서 대신 세금을 많이 내므로, 정부가 바라는 전반적 오염 수준은 정부 규제의 경우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정부가 최대 허용 수준을 정해 놓으면, 목표치를 달성한 기업들은 오염 물질을 더 줄일 필요도 인센티브도 없습니다. 그러나 피구세를 매기면, 기업들은 끊임없이 오염 물질을 줄이려 애쓰고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더욱 발전시킨 것은 ‘거래 가능한 오염권(tradable pollution permit)’입니다. 이 방안에선 정부는 적절한 오염 수준을 선택하고 적절한 양의 오염권들을 기업들에 할당합니다. 오염권은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습니다. 오염 물질을 낮은 비용으로 줄일 수 있는 기업들은 오염 물질을 한껏 줄이고서 남은 오염권을 시장에 팔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그런 오염권을 사서 공장을 움직입니다. 그렇게 기업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오염도를 선택할 기회를 줌으로써, 정부가 바라는 적절한 수준의 오염 물질 배출이 최소의 비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염원이 되는 원자재의 생산자는 그것에 오염권을 묶어서 ‘법적으로 공해가 없는’ 상품들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관행은 거래 비용을 상당히 낮춥니다. ‘거래 가능한 오염권’ 제도는 흔히 ‘제한과 거래(cap-and-trade)’라 불립니다. 허용된 오염 수준의 최대치를 결정하고 오염권이 거래되도록 한다는 것을 드러낸 이름인데,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 이미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생명체들은 모두 최초의 유전자가 복제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은 유기체들은 유전자들을 보존하고 퍼뜨리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보는 유기체들은 모두, 박테리아에서 고래까지, 작은 풀꽃에서 큰 나무까지, 하나의 조상에서 갈라진 친척들입니다. 사람은 발전된 문화를 지녔고 덕분에 지배적 종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태계의 한 부분이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구 생태계라는 맥락에서 벗어나면, 사람의 성취도 존재 이유도 크게 줄어들어 듭니다.

당연히, 우리는 모든 생명체들을 생태계라는 궁극적 사회의 구성원들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생명체들에게 그들이 누려야 마땅한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 원리를 확대하면, 한 생명체의 자유는 다른 생명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른 종들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힘을 가진 우리도 스스로 그런 제약을 두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자유주의의 본질입니다. 비록 지금은 인류가 그렇게 자유주의를 추구할 능력이 없지만, 자유주의의 논리적 귀결은 그것이라는 점은 인식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제적 자유주의의 외연을 넓히다 보면, 다른 분야에선 자유주의자들이지만 경제 분야에선 자유주의에 적대적인 사람들과 교류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주의가 자유주의의 핵심이고 가장 튼실하고 정교한 이론적 바탕을 지녔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자본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조금은 걷어낼 수 있습니다.

실은 그것이 바로 하이에크가 추천한 방안입니다. “자발적 성장을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세운 장애들과 짐들로부터 해방시키려면, 우리의 희망은 천성적으로 ‘진보주의자들’인 사람들을, 비록 지금 틀린 방향으로 바꾸려고 애쓸지 모르지만, 적어도 존재하는 체계를 비판적으로 살피고 바꿀 필요가 있는 곳들은 모두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지지를 얻는 것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적극적인 태도가 지금 우리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헤치는 길입니다.

1983년 가을, 오스트리아학파와 운명적으로 만나다.

김이석(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 고등학교 시절: 문학소년
- 대학시절: 10·26, 80년의 봄. 의욕만 앞서던 지적 혼돈의 시절
제3세계론(제국주의론); 임원택 제2자본론; 신용하, 일제하 민족주의 운동.
신고전파 경제학: existence of general equilibrium(of prices and quantities),
as an evidence of market order? economics as a constrained
maximization problem:
- 대학원 시절: 미제스와 하이에크를 만나다.
 - 미제스 경제학이 내게 흥미를 주었던 이유
인간행위학(praxeology)의 바탕 위에 경제학을 세우는 작업을 했기 때문.
인간행동의 범주: 시간의 흐름 속에서 행하는 인간행동.
화폐문제의 통합: 방법론적 개인주의(주관주의)에 입각
 - 하이에크: 지식의 문제. 경쟁은 발견과정. 경쟁의 결과를 미리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면 경쟁은 무의미; 경제학자의 인식과 경제주체의 인식의 분리.
- 유학시절: Austrian Colloquium

미제스-로스버드-살레노(Salerno):
라크먼(Lachmann)-리조(Rizzo): Economics of time and ignorance: radical
uncertainty; 기계화-공간화되지 않은 시간 (real time)
커츠너(Kirzner): middle ground(Yes, future is radically uncertain; yet there
exists underlying reality, doing the job of maintaining order in the
market)
- 논문: “The Obviation of the Coordination Problem in a Changing World”
하이에크의 질문: Logic of Choice versus Coordination Question: Different.
하이에크의 잠정적 대답: Systematic Elimination of “wrong” expectation.
Knowledge Problem I and II (남들의 계획을 알 수 없다는 데서 오는 문제: 불확
실성)

There exists a Process Obviating the need for “exact“ coordiantion:
rule-following behavior & building the contexts of interaction.

- 한국에 와서: 하이에크소사이어티; 자유기업원; 한국경제연구원; 시장경제제도연구소
 - 번역, 노예의 길(하이에크); 국민경제학의 기본원리(멩거, 민경국 외);
인간·경제·국가(로스버드, 전용덕 외); 화폐와 신용의 이론(미제스) 등
 - 저술, 번영은 자유주의로부터.
 - 화폐문제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중.

반 간섭주의 반사회주의의 대척점에서의 자유주의

민경국 (강원대 교수)

-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개인의 자유.
 - 이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음 변영 효율성은 도출된 가치.
 -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이상: 법치주의 자유 시장 제한된 정부
 - 자유주의의 정신과 열: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정언명령 내가 너를 지배하지 않을 테니 너도 나를 지배하지 말라.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 경제자유는 시민적 자유와 민주주의의 보루
경제자유 없이는 언론 사상 출판의 자유와 같은 시민적 자유, 정치적 자유도 없음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경제자유

- 반공주의: 자유주의의 내가 자유주의자가 되는 첫 단계
 - 공산주의는 한반도에서 피를 흘리게 한 이념
 - 어렸을 때 가정과 초등학교 때의 반공교육 반공주의로 각인
 -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반공주의: 체제수호의 중요한 역할
실천과정에서 문제는 있었지만 그것은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막음
 - 반공주의는 오늘날 반 종북주의.

- 사회주의: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부정.
 - 인센티브 vs. 지식의 문제. 가격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지식의 한계:
미제스- 하이에크 주제
 - 노예의 길

- 시장경제의 가치는 효율성이 아니라 자유. 그 작동이 인센티브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오스트리아학파. 주류경제학과 오스트리아학파의 시장관의 차이.
효율성은 개인적 차원에서나 의미가 있음. 인간과 인간의 관계와 관련된 사회적 차원에서는 무의미

- 간섭주의: 시장경제를 사회정의 경제안정 공공이익 등 집단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상. 간섭주의는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취급.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간과

- 롤스의 분배정의, 공동체자유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 케인스주의 하버드학파의 공정거래법, 필요한 때마다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경제 정책(이성의 규칙)
- 간섭은 간섭을 낳고 이는 결국 사회주의로 가는 길. 간섭의 자기 증폭적 힘

자유주의 : 부자와 기득권을 위한 이념인가? 가난 속에 싹튼 자유주의

신중섭(강원대 교수)

자유주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이념이다. 자유주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믿으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이 선택한 방식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한다고 믿는다. 자유주의는 일부 특권층이 누리던 자유를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한 이념이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부자나 기득권을 위한 이념이 아니며, 모든 사람에게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이념이다. 자유주의는 “모든 인간은 타고난 신분을 벗어나, 자신의 능력과 노력, 주어진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삶을 개척할 수 있다.”고 믿는다. 대부분의 사람이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던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인류를 구한 이념이 바로 자유주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가 부자와 기득권을 위한 이념으로 오해 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잘못된 주장 때문이다.

1.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론** : 모든 이데올로기는 사회적 관계의 반영이다.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특정 계급의 이익을 반영한다. “한 시대에 지배적인 이념은 항상 지배 계급의 이념일 뿐이다.”

2. **부자는 가난한 자를 착취한다** : “이제까지 사회의 모든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 “사회적 일부가 다른 일부를 착취한다는 것은 지난 모든 세기에 공통된 사실이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이유는 부자 때문이다. “현대의 국가 권력은 전체 부르주아지의 공동 산업을 관장하는 위원회에 불과하다.” “프롤레타리아가 자기 것으로 지킬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의 이론을 사적 소유 폐지라는 하나의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견해와 의도를 숨기기를 거부한다. 그들은 그들의 목적이 이제까지의 모든 사회 질서를 폭력적으로 전복해야만 달성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천명한다. 지배계급은 공산주의 혁명이 두려워 전을 할지도 모른다. 프롤레타리아들은 공산주의 혁명에서 자신들을 묶고 있는 족쇄 외에는 잃을 게 없다. 그들에게는 얻어야 할 세계가 있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¹⁾

1) 카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 『공산당 선언』, 이진우 옮김, 책세상, 2002, 16-60쪽.

3. 자유주의는 항상 약자를 위한 정책에 반대한다 : 따라서 자유주의는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자유주의는 민영화,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을 지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 최저임금제, 주택임대료 제한, 상생경제에도 반대한다.

4. 자유주의 사회는 새로운 봉건사회이다. : 가난이 대물림된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특정 계급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자유주의 사회에서의 부의 생산은 제로섬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가 좌파들이 약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내세우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러한 정책이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물론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존재하지만 이것은 신분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에 의해 역전될 수 있다. 빈부가 봉건사회의 '신분'처럼 대물림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주의자들과의 학문적 교류

한국경제연구원 윤상호
2013년 12월 1일

나의 우연한 자유주의자들과의 교류는 조지메이슨대학(Geroge Mason University)의 경제학 박사과정에 들어가 경제학을 배우기 시작하면서이다. 그곳에서 미국의 대표적 자유주의자라고 불리는 윌터 윌리엄스, 피터 벅키, 제임스 부케넨, 버넨 스미스, 그리고 골든 털릭 등의 교수들에게서 수업을 듣고 자유주의가 어떠한 사상적 배경을 갖고 있는지를 배웠다. 물론 이 분들의 수업을 통해 다른 자유주의자이자 경제학자인 밀튼 프리드만, 알만 알치안, 게리 벅커, 미세스, 그리고 하이에크 등등이 쓴 논문들과 저서들을 소개받았고 나의 사상적 배경을 쌓아가는 기회를 가졌다.

그 중에서 아마도 제임스 부케넨과 골든 털릭 교수가 나의 사상적 배경을 갖추게 만든 스승이 아닐까 싶다. 이 두분은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것과 같이 공공선택론이라는 분야를 개척하신 분들이다. 두분의 교수는 나에게 경제학의 방법론적 개인주의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며 흔히 말해지는 사회적 혹은 국가적 결정이라는 말이 얼마나 허구적 단어인지 일깨워주었다. 공공선택론이 기초로 삼고 있는 삼고 있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많이 달라보인다. 사회의 이익이라는 미명아래 추구되는 재분배적 개입주의가 얼마나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인지 알수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마도 방법론적 개인주의라는 창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두분이 나에게 가르쳤던 가장 큰 교훈은 특별히 자유주의자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Dare to Be Different,” 즉 부화뇌동(附和雷同)이 아닌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길을 가라는 모토에 충실하라고 가르쳤었던 부케넨 교수의 수업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¹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방법론 및 연구주제에 있어서 다른 방식을 추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다. 우선 다른 방식을 표명하고 다른 주제를 다루면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학문적 성취도를 인정받기가 어려운 학문이다. 하지만 이 두분의 교수가 나에게 말하는 것은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여정인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어쩌면 그런 면에서는 나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현실과의 타협을 시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썼던 글에서 말해듯이 낭만을 뺀 정치라는 약간은 독특한 학문적 뿌리를 가진 공공선택론의 창으로 세상을 계속 바라보는 이상 계속 자유주의자로 남아있지 않을까 싶다. 전체주의적 사고가 사회에서 뿌리깊게 통용되고 공익이 사익을 앞선다는 유교적 사상이 널리 퍼져있는 한국에서 계속 자라고 배웠다면 아마도 자유주의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또한

¹Buchanan, James M. (2005) *Why I, Too, Am Not a Conservative: The Normative Vision of Classical Liberalism*. Cheltenham, UK: Edward Elgar.를 참고

시장경제가 누군가에 의해 설계되고 만들어졌을 것이며 시장의 부족함은 기계적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고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알게 만들어준 경제학적 지식이 자율성 선택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나를 자유주의자로 만들었다.

나의 개인적 경험은 한국에서 자라나고 있는 젊은이들의 경험과는 너무나 많이 동떨어지고 부족함이 많을 것이다. 또한 내가 배워왔고 얘기했던 경제학적 사고가 너무나 한쪽으로 쏠려있는 시각이라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시장경제의 실패를 너무나 완벽하게 가정된 설계경제 혹은 계획경제와 비교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식의 비교법인지 한번은 질문을 던져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또한 선택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자유가 존재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다. 하지만 이미 나의 냉장고에 어떤 음식물을 보관해야하는지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고있으며 이러한 자율적인 선택권이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자연권이라고 생각한다면 근본적으로 자유주의자의 유전자를 갖춘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주의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다.